

YULLIN
Newsletter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

열린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라는 신앙의 목표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주시는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성경 토크아보기

은혜와 믿음

성경 에베소서 2장 1~1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한 편의 논문처럼 논리정연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8절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이 구절에서 정교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한 편의 논문처럼 논리정연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8절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이 구절에서 정교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왜냐하면 은혜로 말미암아(by grace) 믿음을 통해(through faith)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신자 자신의 행함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바울은 이 지점에서 우리를 살짝 흔들고 있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자칫 잘못하면 나의 행위가 나를 구원하게 만들었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주사 맞으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치명적인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은 약물입니다. 그런데 이 약물을 혈관에 주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사기가 필요합니다. 그 주사를 맞고 나서 몸이 회복되었을 때, ‘아, 주사기가 나를 치료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약이 치료한 것입니다. 바울이 구분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는 것은 ‘약물’에 비유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도록 주사기의 역할을 하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이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일평생 외쳤던 바울의 삶을 따라가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



텍스트와 콘텍스트

두 렵돈 과부의 눈물



김성진 담임목사

본문의 배경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 하였고, 주요 사역의 무대는 성전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잠시 성전에 들렀다가 나오셨고, 둘째 날은 성전에서 장사 하는 상을 뒤엎으시는 성전청결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그 성전청결사건이 불러온 유대의 여러 분파와의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성전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전한 가르침이 본문의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이었고 이 가르침 뒤에 과부의 두 렵돈 헌금 이야기가 이어 집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두 가지 주제는 우리가 인식했던 것보다 더 크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신학과 신앙을 비판하심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이권 서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교 전체의 잘못된 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비판은 그들의 신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윗 자신이 “여호와께서 내 주(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시 110:1)이라고 하며,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리스도(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의 한 사람으로 와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신학적인 기대와 해석은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들에 의해서 처음 주장되어서 랍비들에 의해 가르쳐졌고, 산헤드린 종교회의에서 유대교의 공식화된 메시아 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본문에서 이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이유는, 다윗이 세웠던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그리움과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로마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다윗 때와 같은 나라를 세우는 왕이자 정치가였고, 결국은 민족적 설움과 한을 풀어주는 해결사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 이유가 이처럼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웠기 때문에 서기관들을 비판하신 데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한 태도를 비판하십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팔에서 술이 치렁거리고 땅에까지 끌리는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 받으며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칫집의 윗자리에 앉기 원했습니다. 이런 서기관들의 교만한 모습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막 12:35-44).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40절)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원래 단어는 ‘연극배우’입니다. 실제 삶이 아닌 가상의 삶에서 연기하는 배우처럼, 종교적 행위에 집중하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미사여구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좋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나 가져왔나, 이번에는 헌금함이 얼마나 채워졌나에 마음이 집중돼 있는 탐욕스러운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들이 받는 심판이 더 중할 것이다”(40절)라고 선포하십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가르침,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과 ‘과부의 두 렵돈’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주장한 서기관들의 신학,
민족적 한을 풀어주는 해결사를 원했던 이기심의 발로

서기관들의 교만·외식·탐욕,
과부의 두 렵돈까지 헌금함에 넣도록 고안

궁핍과 자비 없이 ‘비즈니스’하고 있었던 성전,
주님의 멸망 선포 40년 후에 파괴돼”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비판하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40절)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주목하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바로 다음에 가난한 ‘과부의 두 렵돈 사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두 렵돈

우리는 보통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헌신이다, 헌금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44절)까지밖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성전함이 있는 반대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과부들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성전에 ‘여인의 뿔’을 만들고 13개의 헌금함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당시의 화폐는 다 동전이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10원짜리, 5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동전 종류에 따라서 헌금하는 곳을 달리하기 위해서 13개의 헌금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함의 모양을 나

팔 형태로 만들어서 입구로 동전을 넣으면 관을 타고 페구르르 굴러가서 헌금함으로 툭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본문에서 두 렵돈을 드렸던 과부는 가장 소액을 드리는 13번째 헌금함 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헌금하려는 여인들을 고액의 동전부터 소액의 동전까지 해당하는 동전 줄에 서게 해서 헌제자가 헌금할 때 그 동전이 몇 개나 떨어지는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헌금을 많이 하는 과부들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헌금을 적게 하는 여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이 헌금을 드리는 과부들 사이에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그다음에는 서기관들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여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라도 헌금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렵돈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 줄에서 헌금하는 한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은 마지막 생활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지막 생활비까지도 그렇게 털어가는 도적과 같은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과부의 가산도 삼키는 자들(40절)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두 렵돈이면 3천 원 액수 정도의 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아있는 생활비까지 바치라는 정도의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활비밖에 없는 사람들은 성전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마지막 3천 원까지도 헌금함에 넣도록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었고, 그 심각한 상황의 선봉에 서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남편이 없는 과부들에게 서기관들이 남편의 역할을 한다고 하며, 모든 재산을 성전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헌금 강요의 신학적 토대를 서기관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종교 시스템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마음속에서 통곡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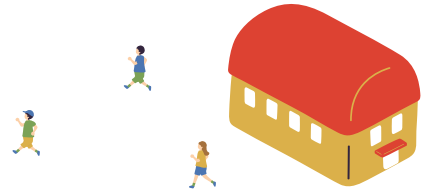
이것이 주님의 성전에서의 마지막 눈물이고, 성전에서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후 성전을 나가실 때에 한 제자가 성전의 외양에 대해 감탄하여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질문했을 때, “돌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막13:1-2)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맺음말

성전에서의 주님의 이 마지막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지,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사랑이 흘러나 가야 될 교회가 마지막 남아있는 생활비까지도 끌어모으는 모습은 아닌지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춰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도, 우리 교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

교회학교섬김조직

지식을 넘어 삶에 적용하는 교육을 지향하다



올해 교회학교의 교육 목표는 ‘지혜교육’을 중심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교회학교는 여전히 ‘회심과 회심의 보존’을 중요한 가치로 삼으며,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잠언 3장 11-18절에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원리로 설명됩니다. 열린교회 교회학교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신앙 교육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교육이 되도록 힘쓰고자 합니다.

이에 교육지원센터가 교육지원부로 변경되고, 교육기획팀과 학부모 협력팀이 신설되어 교회학교를 안팎으로 지원하는 큰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부모 교육과 가정 신앙 훈련을 강화하여 가정과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혜 교육’은 단순히 다음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교사들이 먼저 지혜로운 신앙인의 본을 보이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구조를 마련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기존 사역(등불학교, 등대학교, 테마학교)에서부터 지혜교육을 점차 적용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는 8개 부서가 있습니다. 영아부(12개월-3세), 유아부(4-5세), 유치부(6-7세), 유년부(초등학교1-2학년), 초등부(초등학교3-4학년), 소년부(초등부5-6학년), 그리고 중등부와 고등부가 통합된 청소년부(중학교1학년-고등학교3학년),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한 사랑부가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 교회학교 조직에 포함되었던 태아부는 올해부터 가정사역부로 이관되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교회학교는 한 부서이자 동시에 교회학교라는 큰 울타리로 가정과 교회가 한 사람의 신앙의 자라남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한 해동안 각 부서의 사역들이 잘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가 곳곳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래 조직도에서는 2025년도 교회학교를 섬기게 될 일꾼들을 소개합니다. ☆



디렉터(정): 손하람 목사



디렉터(부): 김민성 강도사



교육지원부

교역자: 김진하 전도사

부장: 김동응 집사

팀장: 나동훈 집사

이경옥 권사



영아부

김진하 전도사

부장: 정성희 집사

부감: 최정미 집사

총무: 윤나래 집사

서기: 정유선 집사

회계: 백승희 성도



유아부

박주광 전도사

부장: 이현희집사

부감: 김성주집사

회계: 김다이집사



유치부

이해선 전도사

부장: 박재현 집사

부감: 나선영 집사

총무: 안효영 집사

서기: 정수연 집사

회계: 김주혜 집사



유년부

권세원 전도사

부장: 김연주 집사

부감: 최현혜 권사

총무: 심태운 집사

서기: 서종현 성도

회계: 신진수 성도



초등부

박승훈 전도사

부장: 이인호 집사

부감: 김혜정 권사

회계: 김혜정 권사



소년부

조일권 강도사

부장: 신현욱 집사

부감: 남윤아 집사

총무: 박병록 집사

서기: 박길태 성도

회계: 김지은 집사



청소년부

이두호 강도사(1국)/김민성 강도사(2국)/김태영 목사(3국)

부사역자: 김태훈 전도사/최현성 전도사

부장: 김종성 집사

1 국장: 김민경 집사

2 국장: 조현주 집사

3 국장: 김선희 집사

회계: 유재은 집사



사랑부

정호석 목사

부장: 김혜정 집사

부감: 임미경 집사

총무: 김민정 집사

서기: 이승지 성도

회계: 유영은 성도

청소년겨울수련회(1국) 후기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가 시작됨을 느낄 수 있었다

 중등부와 고등부가 통합된 청소년부로서 첫 번째 겨울수련회를 다녀왔다. 첫날, 교회에서 개회 예배를 드린 후 버스를 타고 수련회 장소에 도착했다. 식사 장소, 숙소, 예배당을 둘러본 후 등록과 현장 안내를 받고,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있었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는지 그 정성과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이후 조별 모임을 진행하며 서로를 소개하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조원들과 서로를 소개하며 친밀감을 쌓았고, 각자의 신앙적 고민을 나누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조별 게임을 통해 친구 및 동생들과 더욱 가까워지며, 한 공동체로서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경험을 했다. 서로를 격려하고 중보하며 신앙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만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도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을 보며, 수련회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나는 수련회에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기 위해 왔지만, 예상치 못하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을 보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번 조별 모임을 통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며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저녁 집회에서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듣고 열렬히 기도하는 시간은 더할 수 없이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특히 손하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달으며 나의 죄에 대해

눈물로 회개하였다. 또한, 삶의 여러 순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 은혜로운 말씀을 통한 기도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반복적 회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 자유롭게 뛰며 마음껏 찬양하고, 가슴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 더욱 감격스러웠다.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드리며 기도할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됨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경전회와 국별 모임을 마친 후 ‘믿음의 성벽’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게임은 조별로 코스를 돌며 퍼즐과 점수를 모아 경쟁하는 방식이었다. 진행 도중, 김성진 담임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 수련회장까지 직접 찾아와 기도해 주시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교회의 성도님들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에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특히 나는 새롭게 구성된 학생자치회의 중학교 1~2학년 학생 대표 임원팀으로 섬기며, 국별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의 MC를 맡게 되었다. 수련회를 가기 한 달 전부터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팀원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지며 레크리에이션 전반적인 내용들을 준비하였

다. 수련회를 떠나기 전 날에 리허설까지 진행하며 철저히 연습했다.

그러나 수련회 장소에 도착해 무대를 마주하니 긴장감이 엄습했다. 게다가 1국의 참석 인원이 제일 많아, 가장 넓은 예배실에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해야 했기에 부담감이 더욱 커졌다. 국별 프로그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준비물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시간도 조금 지연이 되어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재미를 추구하는 게임이 아닌 그 이상의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돕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록 처음 말아보는 MC 역할이라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등 미숙한 부분이 많았지만,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며 주님을 붙들 수 있었기에 평안 가운데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할 수 있어 감사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찾고 있던 ‘섬김’의 가치를 학생 대표의 역할을 감당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위해 배려하며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수련회에 헌신한 스태프 선생님들의 사랑과 수고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나도 나중에 청년이 되면, 지금의 청년 선배님들처럼 후배 청소년들을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분들을 통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나의 삶에서도 어떻게 섬김을 실천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



박한겸 청소년부1국

청소년겨울수련회(교사) 후기

은혜받는 아이들을 보면 힘든 일들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숨 가쁘게 준비했던 겨울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와 시간, 물질로 후원해 주신 여러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작년 12월에 중·고등부가 청소년부로 통합되었지만, 공간 문제로 실질적으로는 올해 1월부터 통합되면서 짧은 준비 기간으로 많은 선생님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 과거 중등부와 고등부가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달랐고, 일하는 스타일과 문화도 많이 달랐다는 것을 서로가 인지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자의 문화보다는 청소년부에 맞는 새로운 문화와 색깔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또한 한 공동체로 모인 선생님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많이 단축됐겠다는 생각도 들

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외부 강사나 찬양팀을 초빙하지 않았음에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고등부가 연합된 시너지가 아닐까 합니다. 달란트를 가진 많은 분이 다른 어떤 전문가보다도 더 전문가로 섬겨 주셨고, 고학년들은 저학년들의 활기찬 에너지에, 저학년들은 고학년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찬양의 모습을 통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청소년부에서는 학생 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수련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스터 디자인도, 굿즈 디자인도 문화디자인(홍보)팀



김종성 청소년부 부장
sykjs@hanmail.net



학생들이 맡았고, 국별 프로그램도 학생 임원들이 맡아 계획하고 진행했습니다. 식사하고 있는 학생 임원들에게 힘들지 않았는지, 다음에 또 하고 싶은지 물어보니 환한 얼굴로 또 해보고 싶다는 학생들의 얼굴이 생생합니다

500명 가까운 인원이 움직이는 큰 행사이고, 처음이라 미숙한 점도 많았지만 말씀 듣고 눈물로 기도하며, 감격의 찬양을 드리는 학생들을 보며 그 동안의 힘든 일들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많은 선생님, 스태프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이 맛에 수년간 교사, 스태프로 봉사하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다시 여름수련회를 하나씩 준비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실 것으로 믿으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줄로 믿습니다. ☆

청소년겨울수련회(3국) 후기

힘들 때 언제나 만나주실 주님



김란 청소년부3국



어렸을 때부터 수련회에 모두 참석해왔던 저는 이번 수련회도 당연하단 듯이 별 감흥 없이 참석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겨울수련회를 외부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기에 신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철없는 저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번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늘 덤병대는 저는 수련회 첫째 날부터 발목을 다쳤습니다. 발목을 돌리기도 힘들 정도로 아파서 저녁 집회 기도 때 다들 앞으로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만 저는 서서 기도하지도 못해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많이 서러웠지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저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께 기도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발에 통증이 사라져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울부짖으며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주님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과 나의 기도를 언제나 듣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상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 사실은 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셨으며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은 하루의 시작을 경건회(QT)로 하였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혼자 읽던 성경은 단순히 글자만 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날 읽었던 본문은 눈먼 자를 예수님께서 침을 섞은 진흙으로 고쳐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명 여러 번 읽었던 본문이었고, 설교도 자주 들었었는데 그동안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QT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녁 집회 기도 시간에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해서 감사 기도드리는데 눈물이 차올라 예배당 앞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시는 장면을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먼지와 같은 존재일 텐데 이런 나를 태초 전부터 사랑하여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정말로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초 고3이 된 것을 실감했을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번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누구보다 잘 헤쳐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비록 이 자신감이 얼마가지 못하고 또 무너질 테지만 그때마다 이번 수련회에서 느꼈던 것들을 생각하며 올해를 잘 마무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힘들 때 울며 주님을 찾으면 언제나 나를 안아주시며 만나주실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

교회 소식



학습·세례·입교·유아세례 교육

신청: 2월 23일(주일)~3월 23일(주일)까지
교육: 3월 29일(토)~4월 12일(토) 매주 오후 4시
문답: 4월 19일(토), 26일(토) 오후 4시
예식: 5월 4일(주일) 2부·3부 예배
대상: 유아세례-만 24개월 이하
학습·세례·입교-만 14세 이상
장소: 유아세례-영아부실(별관1층)/세례·입교-새가족실(별관2층)/학습-다목적실(본관3층)
방법: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현장) 안내데스크에 신청서 제출
문의: 강성만 집사
(*천주교에서 영세받은 분은 다시 학습과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제36기 새생명전도학교

일시: 3월8일(토)~4월12일(토)
매주 오전 10시 30분~오후 3시
장소: 본관1층 예배실
강사: 권경철 목사, 강정수 목사(EDI전도제자훈련원 간사, 더사랑의교회 부목사)
대상: 청장년 성장반 수료자 이상
모집기간: 3월 2일(주일)까지
문의: 박미경 권사

제17기 신약개관학교

일시: 3월8일(토)~ 4월12일(토) 매주 오후 7시
장소: 열린빌딩6층
강사: 정창욱 교수(총신대 신약학)
신청대상: 청장년 성장반 수료자 이상
모집기간: 2월9일(주일)~3월2일(주일)
문의: 허신구 집사

제14기 온라인 교리반

일시: 3월8일(토)~5월17일(토), 마지막 주 시험
강사: 김성진 담임목사 영상강의
신청대상: 청장년 성장반 수료자 이상
모집기간: 2월9일(주일)~3월2일(주일)
오리엔테이션: 3월 8일(토) 오후 3시, 열린빌딩 6층
문의: 김재현 집사
(*오리엔테이션 및 수료 시험은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목요직장인예배 섬김이 모집

일시: 매주 목요일 12시, 4월 3일(목)부터 시작
장소: 본관3층 예배실
문의: 신준영 집사
섬김영역: 찬양팀(싱어, 베이스, 드럼 등)
진행팀(안내, 식사 등)

제27기 등불학교

주제: 하늘의 지혜로 자라나는 어린이
일시: 3월 30일(주일)~5월 18일(주일) 매주 오후 3시
대상: 유치부·유년부·초등부·소년부
접수기간: 2월 23일(주일)~3월 8일(토)

주요사역

2일(주일) 새가족환영회
2일, 9일(주일) 장학현금
2~23일(주일) 교회학교 교사대학(4주)
3일(월) 서초시찰회
7일(금) 백향목 개강
8일(토) 중직자기도회/예배섬김세미나/청장년부교리반(8주)/온라인교리반(11주)/새생명전도학교(6주)/신약개관학교(8주)
10일(월) 아웃리치 목회자 초청세미나
15일(토) 부모기도회/등불학교 학부모설명회
16일(주일) 정기당회
19일(수) 기도세미나
23일(주일) 정기제직회
30일(주일) 등불학교 개강(8주)
31일(월)~4월20일(주일) 주바라봄새벽기도회(21일)

2025

교회학교 교사대학



일시 3월 2일(주일)~3월 23일(주일) 오후 2시

장소 청소년부실(열린빌딩1층)

대상 교회학교 교사

강의 및 강사

2일 교리에서 발견하는 복음(박재은 교수, 총신대 신학과)
9일 성경에서 발견하는 복음(김성진 담임목사)
16일 복음으로 나타나는 기독교 세계관(신국원 명예교수, 총신대 신학과)
23일 복음으로 가르치는 기독교교육(함영주 교수, 총신대 기독교교육학과)

새가족

▶▶ 장년

김윤재(91)
문소현(97)
황숙(69)
김경민(66)
김은영(67)
이상현(79)
신영희(68)
이계인(83)
조재중(44)
신우진(68)
김은영(71)
조혜숙(66)
남엘리엘(90)
김승연(91)

▶▶ 청년

박찬혜(82)
장윤하(89)
반재학(74)
이지현(65)
이정민(73)
김주현(66)
허유나(69)
도현진(89)
정희진(93)
이지연(77)
최희수((64)
안경모(83)
정이슬(86)



강도사인허 후기

소명의 나침반을 바라봅니다



조일권 소년부담당강도사
paulcho0305@gmail.com



가을의 문턱을 넘어가는 시기, 겨울 바람이 조금은 물어나는 것 같지만 아직은 청량한 가을 하늘에 시선을 걸어둘 수 있을 때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인허까지 오는 길은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유치부 교역자로 섬기는 동안, 말씀은 제게 걸어가야 할 빛줄기였습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 어두워 희미했고, 때로는 말씀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위엄에 눈부셨습니다. 어린 영혼들의 맑은 눈빛을 마주하며 전했던 그 말씀들이, 때로는 거친 바람처럼, 혹은 고요한 속삭임처럼 제 안에 머물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였으나, 사실은 아이들이 제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실로 저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토요강단기도모임 후기

나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저는 2017년에 열린교회에 등록하고, 말씀의 큰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초창기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 저런 말들을 하게 되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구역모임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느꼈습니다. 구역모임을 하며 우리 가족의 죄와 허물을 나누게 되었고, 함께 기도하며 깊은 위로를 얻기도 했습니다. 고통과 슬픔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함께 웃고 우는 기도의 동역자들 덕분에 화평과 희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역원들과 함께 기도하니,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명확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응답 받으며 저의 신실하신 하나님, 좋은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저는 토요강단기도모임의 기도자가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라 믿어졌습니다.

2024년 1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 토요강단기도모임의 첫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던 저에게, 기도에 대한 배움이 있는 곳이자 큰 도전을 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조희숙 전도사님이 기도모임을 인도하시고 찬송과 설교, 기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 전도사님이 기도할 내용을 미리 알려 주시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교회의 강단을 위해서,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예배 헌신자들을 위해서, 교회학교와 청소년부를 비롯한 교육부서를 위해서, 모든 예배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자립 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해외 선교사를 위해서 등.

이전에는 그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큰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참 기쁘고 설렘니다. 토요강단기도모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강도사 인허는 붉은 인주처럼 선명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영광이면서 동시에 무거운 멍에였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 마지막 정령의 때라는 울림이 저를 파고들었습니다. 말씀의 날(刀)을 더욱 날카롭게 갈고 닦아야 할 것입니다.

사역의 길은 곧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따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더듬어 보았던 그 감각은 날이 갈수록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산길처럼 때로는 가파르고, 때로는 안갯속을 걷는 듯 희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모두 주님께서 맡기신 보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소년부 친구들이 제게 그러한 보배입니다.

강도사의 직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말씀의 벼랑 끝에 서서, 더 깊은 곳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더 날카롭게 말씀의 검을 갈며

나아가겠습니다. 그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간다는 심정만이 제게 남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제 가슴을 울립니다. 조금이라도 닳고 싶은 인생을 살았던 그와 차츰차츰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강도사가 되어도 그는 더욱 멀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그가 고백했던 길은 한없이 높이 솟은 태산의 길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그의 발걸음을 흉내내고 싶습니다. 넘어질 테고, 흔들릴 텐데, 누구보다 더 많이 그리할진대, 한걸음이라도 내딛어 보려 합니다. 그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소명의 나침반을 바라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 이 고백이 제 생애의 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장향숙 장년3교구
sooksook111@daum.net



추천도서

복음대로 삶

싱글레어 B.퍼거슨/생명의말씀사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바울의 권고는 ‘복음과 일치하도록’ 살고, ‘복음과 어울리도록’ 살라는 뜻이다. 이것이 가능할까? 내가 어떻게 복음대로 살 수 있을까?

저자는 에덴동산 이래 우리 본성에 내재한 율법주의에 따라 이 명령을 자력으로 성취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의해 우리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 감으로써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그분의 은혜가 뒷받침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순종의 기초이자 동기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옛 본성에 따라 먼저 명령을 수행한 후에 은혜를 획득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복음대로 삶』은 얇지만, 복음과 복음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응축된 책이다. 저자는 먼저 성경적 순종과 율법주의의 차이를 명확히 한 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인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복음이 작동하여 우리 안에서 어떤 성품을 빚는지, 복음으로 빚어진 성품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끄는지를 차근차근 명료하게 설명한다. 하나님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명령하실 뿐 아니라 방법을 알려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고, 우리 자체를 변화시키신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귀한 가치이고 명령이지만, 당장 실천하기에는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졌다면, 이 책을 통해 정확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출판사서평)



강단기도모임

강단기도모임은 세 개의 모임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강단기도**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별관2층 교육실4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양, 말씀, 기도회 순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별히 주일예배와 설교자, 교회를 섬기는 이들, 교회학교와 청년부 예배, 조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에 자신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되는 모임에 열린교회 성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강단기도**는 매주 주일 예배시간에 본관 1층에 있는 기도실에서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처음부터 헌금기도까지 같이 진행하다가 설교말씀이 시작되면 드러지는 예배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섬김입니다. **온라인강단기도**는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온라인기도 단톡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로드되는 기도제목을 보고 각자가 있는 곳에서 주일예배와 설교자,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섬김입니다. 현재까지 231명이 온라인 강단기도에 참석하고 있으며 더 많은 분이 참여하여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하고 있습니다.(기도사역부)

온세대아침예배 후기

먼 훗날 아침예배를 기억하며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기를

임윤이 장년6교구
uniim913@naver.com



“내일 아침 예배 갈 사람 손들어!”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세 아이는 두 손을 번쩍 들고 두 발을 바빠 움직이며 “저요! 저요!”를 외치며 제게 달려와 차례로 얼굴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늦잠 자기를 간절히 바라는 첫째가 “엄마, 한 번에 벌떡 안 일어나면 못 가는 거죠?”라며 동생들을 단호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제 답을 기다립니다. 온세대아침예배를 앞두고 시끌벅적한 금요일 저녁 우리집 풍경입니다.

저에게 새벽예배는 참 특별합니다. 청소년기에 만난,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새벽예배로 이끌었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서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통과하는 것임을 보여주셨고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첫 시간을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막연하게 있었습니다. 때마침 작년에 주바라봄기도회가 시작되었고 첫날 성도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보고 저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아무도 엄마에게 눈치를 주지 않더라도 엄마 스스로 눈칫밥을 먹게 됩니다. 이른 아침 아이 셋을 데리고 무턱대고 집을 나서긴 했는데 얼마나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예배당에 도착했을 때 밝은 미소로 반겨주시던 목사님과 전도사님, 아이들이 설교만 시작되면 파배기 버튼이라도 눌린 듯 몸을 배배 꼬아도 마냥 귀엽게만 봐주시던 성도님들의 따스한 눈길 덕분에 아이들에게 미지의 세계였던 ‘어른 예배당’에서 드리는 아침예배는 즐겁고 재미난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 예배당에 나오는 것에 따뜻한

기억과 좋은 느낌이 가득한 아이들은 온세대아침예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첫째 아이는 온세대아침예배 가운데 기도 시간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부서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자기 세상을 사는 아이에게는 모든 어른이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고 느껴지나 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이렇게 많은 성도가 모여 힘써 기도하고 있음을 아이들은 이렇게 몸의 모든 감각으로 느끼며 그 기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예배를 통해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쪽쪽이를 물고 있는 아기까지 온 세대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예배를 배워나가고 온 세대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감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인 우리 아이들이 온세대아침예배를 통해 훈련받고 자라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회 안에서 가장 기뻐던 순간은 세 아이 모두 부모로부터 온전히 독립하여 예배드리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아이들과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부르고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침예배 시간이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앞으로 온 세대가 다윗처럼 춤을 추며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과 예배드리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감사와 기쁨 안에서 한편으로는 “이 고사리 같은 손을 붙잡고 언제까지 온세대아침예배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섞인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보여주는 귀한 보물 같은 순종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젠가 마주할 아이들 삶에 닥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힘없이 주저앉아 혼자 슬퍼하며 눈물을 닦고 있는 순간이 오더라도 이 아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토요일 아침, 온 세대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했던 순간을 기억하여 두 주먹 불끈 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골짜기를 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새공과 소개

예배 그 은혜의 땅에 서다



<예배 그 은혜의 땅에 서다>는 예배의 본질과 회복을 깊이 탐구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열린교회 2024년 가을 말씀사경회에서 전해진 말씀들을 토대로 집필된 것으로,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 백성의 표지(정체성)와 신앙의 핵심으로서의 ‘예배’를 주제로 다룹니다. 예배의 본질과 그 의미, 그리고 예배 회복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총 다섯 개의 장에 담아 사경회 때 교회 위에 부어주신 은혜를 지면 위에 고스란히 옮겨 놓았습니다.

본서는 단순한 예배 지침서가 아닌 열린교회가 지향하는 예배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깊은 성경적 통찰을 담은 책입니다. 본서를 읽으며 우리는 성경적 예배의 핵심이 첫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이며, 둘째,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는 예배가 무너졌을 때 성도의 삶과 하나님 백성 공동체 역시 쇠약해졌고, 예배가 회복될 때 성도의 삶과 공동체가 함께 회복되었음을 알려 줍니다.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핵심인 예배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공과를 사용하셔서 온 교회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며, 매 예배 시간마다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매 주일의 예배 가운데 보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

(목양사역위원회)

곰곰이 생각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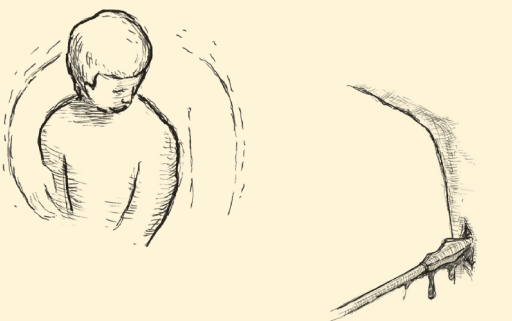
당신과 내가 하나님께 ‘아파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과 나를 고치시려는 손은



못질 당했던 손이고,

품으시려는 옆구리는



창으로 찢렸던 옆구리이기 때문이다.

상처 입은 의사가 치유할 수 있듯,
예수님은 아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다.

- 사도신경 ‘본디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를 묵상하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
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장년4교구)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어 알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마태복음 6장 26절



행복한 사람

실패할 때 더 강하게 붙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김삼 장년7교구
samgimm@gmail.com



외할머니의 깊은 신앙심과 당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부모님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 는 제게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따뜻한 환대와 헌신적인 가르침,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 거운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시절, 도서관에서 시험공부를 마치고 나오던 중, 한 대학생 누나를 만났습니 다. 그분이 전해준 사영리 전도지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과과의 인격적 만남은 고등학교 때 찾아왔습니다. 교회 친구들과 함께 온누리교회 목요찬양예배에 참석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 중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가사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 다. 그 후 저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찬양과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으며, ‘주를 찾 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시편 9편 10절의 말씀은 제 삶의 든든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저의 삶은 교회를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신앙서적을 통해 성경적 가치관이 형성되 었고, 책의 저자이신 목사님들의 교회를 탐방하며 설교말씀을 사모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는 방배동 시절 열린교회의 수요일예배도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부분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신앙인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 아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약할 때 강함으로, 갑갑할 때 풍성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청년부에서는 일찍이 제자훈련을 받았고, 나눔식 성경 공부를 통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함께하는 청년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충실했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저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청년부 리더로 섬기며 깊이 소속되어 있던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 내 다양한 의견 차이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려 움을 겪었고, 결국 아내가 먼저 교회를 옮겼으며, 저 역시 리더 역할을 마무리한 후 교회를 떠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결혼하고 한 아이의 부모가 되었지만, 새로운 교회를 찾기보다는 육아와 직장생활이라는 일상에 매몰되어 지냈 습니다. 그러던 작년 이맘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방법으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과의 대화 중에 과 거 열린교회에서의 수요일예배 기억이 떠올랐고, 며칠 후 우연히 함께 퇴근하게 된 동료의 차 안에서 열린교회의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30여 분간의 설교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은혜로운 말씀의 감동을 다시 일깨워 주었고, 집에 돌아와 서도 그 여운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계기로 저희 부부는 2024년 1월 7일, 열린교회의 주일 예배에 처음 참석하 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아내는 눈물을 흘렸고, 저 역시 감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 진 행되던 전도서 설교 시리즈는 회사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힘들었던 제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 다’는 말씀은 제 상황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고, 그 말씀은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개인적인 간구가 있었던 시기여 서 더욱 말씀에 집중했고, 주일에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되새기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년간의 신앙생활 공백을 메우는 여정에서 성장받은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정상 목사님과 일대일로 진 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오히려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익숙하지만 새롭게 다가오는 진 리들을 통해 주님과 친밀했던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듯했고, 목사님의 균형 잡힌 지도는 영적 회복의 시간 그 자체 였습니다. 얼마 전 시작된 구역모임은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는 팀장님과 성숙한 구역원 들과 함께, 한주간의 삶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매주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어 려움이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진지하게 직장생활에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 의 재무적 어려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제게는 믿음의 시험이자 영적 성숙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 다. 매주 구역모임에서 함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 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굳게 믿게 됩니다. 1년 전 난생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여기가 뭐하 는 곳인지 몰랐는데”라고 말하던 아이가 이제는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을 집에서도 흥얼거리며, 즐겁게 예배의 자리 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를 마친 후 또래 친구들과 뛰어다니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시절 저의 교회 생활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주일학교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서 한명 한명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사랑으로 섬겨 주시는 모습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녀와 함께 누리는 예배의 기쁨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제 저희는 열린교회의 비전처럼 거룩한 예배와 참된 목양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고자 합 니다. 일상에서 믿음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며, 때로 실패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더라도 더욱 강하게 붙들실 주님의 은 혜를 바라봅니다.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녀에게 이 믿음이 귀한 유산으로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양가 부모님께도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전 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진
시무장로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준경 이영춘 구용희 이동훈 박희준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호 김남근
부목사	이성도 최성기 류요한 권경철 명성인 심재운 정대환 김하림 이규희 김동기 손하람 최영광 김진산 김태영 정호석 최은광
협동목사	정창욱
강도사	김민성 이두호 조일권
전도사	최선미 양승희 김미영 조희숙 객해정 김현희 김다영 김진하 이찬 이순이
교육전도사	곽승훈 권세원 이혜선 박주광 김태훈 최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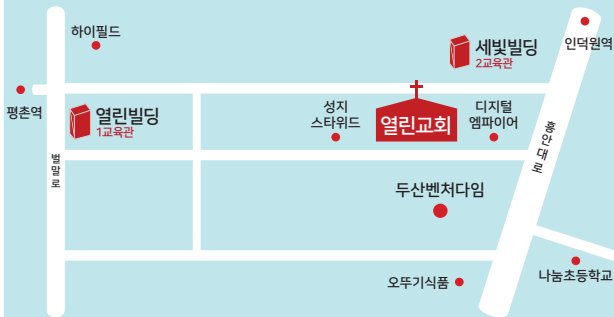
파송선교사

A국: 2 units / B국: 1 unit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해림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태국: 김요한 & 이진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3부	정오 12시 (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2)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청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사랑부	오전 10시 (취학부: 별관 1층 교육실1) (청년부: 별관 2층 교육실4)
중국인예배 中国人礼拜	정오 12시 (세빛빌딩 5층 중국어예배실) 中午 12点 (世光大厦 5楼 中文礼拜部)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회	오전 10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백향목공동체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예배실)	
화요전도기도회	오전 10시 (본관 1층 예배실)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배부르게 먹은 양식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내려 주십니다